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좌초 위기”

나인권 도의원 “도민 염원 초대형 산업폐기장 될 우려... 전북도,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 촉구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급성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북도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염원 새만금 사업이 각종 이권과 문제점으로 얼룩지고, 새만금개발청의 관리능력 부재와 전북도의 무능한 대처까지 더해져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회는 사업 개발비 6조원, 2.1GW의 사업에 지역기



위반하고 있다

또, 한수원이 만든 새만금 옴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고, 한수원의 300MW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됐는데, 심상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는 현대글로벌은 2018년 3월 사업제안과 주주협약을 맺었다

이는 사업권 무(無)확정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이 제안한 것으로 명백히 특혜라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비율 155%의 신용등급 BB의 현대글로벌이 입찰 없이 약 3,000억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고열에 취약해 어선화재의 주범이자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 FRP를 한수원 새만금 옴라파워는 입찰공고에서 사용권장 제시하고, 수상태양광에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화컨소시엄이 결정됐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관계자들이 이해당사자인 기업직원들과 수차례 골프회동을 가지는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 정보 유출도 가능한 것으

로 의심된다는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나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는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임에도 반성은 커녕 민간협의회의 과도한 문제제기로 더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3기 구성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은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비공정하고 반환경적이며, 민관협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새만금이 초대형 산업폐기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북도가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韓경제 정상궤도”

“올 성장률 3% 중·후반 회복... OECD 중 가장 앞서 여전히 위기 국민 많아... 불평등 완화 최선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6%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제 한국경제는 코로나의 어둠과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됐다”며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더욱 강해진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수출과 투자, 민간 소비, 재정 모두가 플러스 성장하며 1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

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 매출액도 크게 늘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를 이어 나간다면 올해 성장률 3% 중·후반에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번 처분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하다”며 “정부는 경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절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으로, 코로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민주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감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단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체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채태라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찾은 이상직 의원 특별경제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의 영장심사는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없어야”

나기학 도의원, “두 시설 목적 동일하는데 인건비 기준 달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 제1선거구)의원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에 따르면 아동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전북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룹홈 종사자는 정액 지급인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호봉으로 지급하고 있어 매년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있었다”며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휴먼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며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북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반쪽짜리 태권도원 발전 위해 나서라”

황의탁 도의원 “개원 8년 됐음에도 민자유치 단 한건도 없어”

전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이 “반쪽짜리 태권도원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무주 태권도원이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의 성지로서 태권도 발전 중추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성대하게 개원했지만, 개원 이후 민간투자 유치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민자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매년 투자유치 설명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자유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전북도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약 17억인데, 이중 민간투자 유치 관련 예산은 전체의 2.5%인 3.1억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의탁 의원은 “전북도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태권도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북도가 그간의 민자유치 관련 업무 전반을 완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해야”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전기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의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전북도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기 미공급지역은 완주군의 운문골과 밤목마을, 진안군의 하가막·와룡·양지마을 등이며, 이 중 몇 가구는 자가발전 설비인 태양광 조차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두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민이 냉장고, TV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를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



보건의료인협회
유호기간 2019.12 ~ 2023.12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2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가겠습니다.
환자경험 중심의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저저 받았으니 저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제1대 병원장 마티 잉골드 일기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90604-중-95081호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 : 063.230.8114 고객센터 : 063.230.8181/8196 응급의료센터 : 063.230.8282